



수도권

향나무

배재학당 다닌 김소월이 좋아한 향나무



지정번호 서2-2
지정년도 1972
관리기관 서울
수령 578년
수고 17m
흉고둘레 2,7m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
37° 33' 50.28" N
126° 58' 22.22" E

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보호수(서2-2) 향나무는 도심의 길가를 약간 오르는 것 같은 동산의 배재학당 정원에 자라고 있다.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데, 1885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하여 세워졌다. 향나무의 나이는 578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밑동둘레는 4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0m 정도이며, 상층부에서 가지를 내어 배재학당의 지붕 위를 약간 덮고 있다. 원줄기는 높이 9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을 한 상태이지만 수직에 가깝게 뻗어 올라가 위쪽에서 가지를 펼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으나 배재학당의 학생과 관련이 있다. 향나무는 배재학당을 다녔던 김소월 시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한 나무로 유명하다. 김소월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서재필, 주시경

등이 이 향나무 밑에서 책을 읽거나 뛰어놀았다. 시인 김소월과 데이비드 맥캔 하버드대 교수는 이 향나무와 각별한 사이이다. 맥캔 교수는 1960년대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김소월의 시집을 읽고 그 길로 김소월 연구가가 되었다. 맥캔 교수는 시를 통하여 한국 문학을 접하며 김소월이 좋아하였던 이 향나무까지도 열심히 가꿨다. 그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 향나무에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뽑는 등 고사하지 않도록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향나무는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도 전한다. 줄기 위쪽에 박혀 있는 못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그의 말을 묶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교육기관의 배재학당이 있는 작은 언덕길을 파인 스트리트(pine street)라 불렀다. 당시 이 향나무를 소나무로 오인한 탓인데, 그 때문에 이 일대를 왜송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